

지역 매아리

정읍시, 장애인연금 상향 지급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액을 증액해 지급한다.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는 수급 자격에 따라 25만3750원(주거·교육·차상위)에서 최고 30만원(생계·의료수급자)까지 상향된다.

부가급여액도 기존 2만원부터 33만원까지 차등 지원되었으나, 4월부터는 2만원부터 33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와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마을 해설사 교육 실시

정읍시가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마을 해설사를 양성한다.

시는 지난 공동체육성사업을 통해 발굴된 50여개 마을 공동체와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농촌 관광의 중심 마을로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내달부터 마을 해설사 양성교육을 시작한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마을 만들기과 지역 공동체 등 공익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한 공동체 리더와 구성원이다.

교육에서는 마을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공동체 조직화와 주민동기화 방법, 회의기법, 마을 모니터링, 자원조사 기법 등이 안내된다. 참여자들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구체화된 실무지식을 익혀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의 조력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설사 육성을 통해 마을 자체를 관광코스로 만들고 마을들을 하나하나 이어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를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 나아가 정읍을 알고 관광객들에 설명하는 것이 농촌 관광의 기본이라 생각한다"며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마을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정읍의 핵심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관광프로그램 캠퍼스가 4월 7일 코레일 철도관광을 통해 300명, 5월 12일 3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마을 공동체를 찾아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산단의 조속한 완공에 최선을”

유기상 고창군수, 산단 유치권 해소 통한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 밝혀

고창군 유기상 군수가 상반기 중 산단 유치권 해소를 통한 군민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27일 오전 고창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중 유치권 해소를 통해 산단의 조속한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생명 식품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유 군수는 산단의 빠른 완공을 통해 연관사업 파급효과가 큰 식품기업 유치 의지를 밝혔다. 고창은 산, 들, 바다, 갯벌, 강이 모두 있어 농식품 산업을 하기에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나오는 수박, 딸론, 배추, 죽순, 소고기 등은 전국에서 최고로 자부하는 명품 브랜드"며 "지역의 농수축산과 연계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식품기업들과 활발히 접촉하는 등 고창지역 투자유치를 성사 시키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군수는 지역내 논란이 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질문을 받고 "3대 군수에 걸쳐 지역민과 소



유기상 고창군수가 27일 오전 고창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단 유치권 해소를 통한 군민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통·협의를 온 사안을 중단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적관리와 오염도 모니터링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고창지역 중장기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부창대교, 목포-인천 서해안 산업철도 등을 제시하고 "대형 SOC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가계획에 포

함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기상 군수는 지난해 3월 27일 같은 자리에서 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군민과 함께 고창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온 힘 쏟아

정읍시가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시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샘고을시장을 문화·관광·쇼핑이 공존하는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침체된 연지시장은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지역의 명품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샘고을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희망사업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시는 2020년 2월까지 예산 총 8억6000만원(국비 4억3000, 지방비 4억3000)을 투입해 시장 내 6분에서 100년 광장까지를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또 시는 특색 있는 웰빙 먹거리를 지속 발굴하고 빗길과 구절초, 단풍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외부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전통시장의 매출 늘리기에 힘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지시장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연지시장 먹거리타운



정읍시가 샘고을시장을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조성' 계획을 세운다. 시는 이미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총 45억(국비 27억, 시비 18억) 규모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안을 확정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계획안에는 연지시장 진입로 입면정비와 화장실 개선·확장, 이케

이드 설치, 테마 거리 조성, 고객원터·문화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업 대상지는 4월 현장심사와 5월 최종 선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유진섭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요하다"며 "상인의 자생력을 높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반도 농업의 꽃 피우다

고창군 '시농대제' 고인돌공원 일대에서 내달 19일 개막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여는 '시농대제(始農大祭)'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9일 오후 1시부터 고창군 죽림리 고인돌 공원 일대에서 '2019 고창 한반도 시농대제'를 연다.

이번 시농대제는 토종씨앗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농의식', 군민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농부권리장전'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농생명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제 의식이 반영됐다. 순수하게 한반도 농업가치 존중을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관 행사로 의미가 크다.

개막공연으로는 그 시절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덜어 줬던 농악과 농무, 농요가 결합한 복합공연이 펼쳐지고, LED화면을 통해 어머니의 땅 '고창'을 주제로 한 영상

퍼포먼스도 이어진다.

이밖에 행사장 안에는 '씨앗나눔 마당'이 열려 고창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물의 씨앗(옥수수 등 20품목)을 무료로 나눠주고, 모종 4인주를 원가로 살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앞서 고창군은 주변에 산재된 2000여개의 고인돌유적과 부장품인 반월형석도(반달모양 돌칼로 곡물수확) 등으로 미뤄 한반도에 서 가장 처음 농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업의 중요성을 열 번 강조하는 것보다 일원제를 통해 농업의 신성함을 알리는 것이 바르고 빠른 일이다"며 "이번 한반도 시농대제를 통해 고창군이 명실상부 농생명식품산업의 수도로 발돋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개최

부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지원하는 '2019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의 노인 재능나눔 참여 어르신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부안읍내 2km

치매극복 걷기와 치매인식개선 캠페인도 실시했다.

행사는 치매예방체조와 건강박수로 몸풀기를 한 후 '함께하는 치매예방! 가치 있는 백세건강'을 소망하며 걷기를 완주한 주민들에게는 기억키움 기념품도 증정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시간 변경

부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시간표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 동안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요구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규준수 운영 등을 위해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담양무원와 용역사, 버스회사 관계자 등이 TF팀을 구성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선별 승차인원, 정류장별 승차인원, 적정운행대수 및 운행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안군 실정에 가장 적합한 버스 노선 개편을 실시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산·줄포면 방면은 해당지역 인구 및 생활여건 변동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행횟수를 2회에서 18회로 축소했으며

일부 노선의 경우 주민의 일상생활에 맞춰 첫차와 막차의 출발시간을 조정했다. 또 버스 미운행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산면 부동마을은 운행노선을 신설하고 계화면 하리마을은 기존 8회에서 17회로 운행횟수를 증가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운행횟수가 증가된 곳은 부안읍(행중-월산), 보안면(정춘-사창), 진서면(백포), 백산면(석교), 하서면(청서)이며 운행노선이 변경된 곳은 동진면(간척지방면), 보안면(홍산, 삼십교, 삼석교), 줄포면(사파산)이다.

버스 운행간격이 축소된 곳은 행안면(미동, 사산, 대초), 하서면(계곡)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한정된 버스 대수와 이용객 감소,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부안군에 가장 적합한 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명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different wine bottles and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descriptions.